



# 평생, 땅의 농부로 산

원경선(元敬善) 이사장 - 2 -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실천하시는 원경선 선생님은 하루의 끝을 성경 읽기로 마무리하시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2. 높은 천성의 인품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친근감이 생기고 그 친근감은 형식적인 대함으로 흐르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는 격의를 떠난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하대(下待)하거나, 천박한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거의 매월 만나는 'Global 500' 모임에서 원경선 선생님을 뵈는다. 그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사시지만 원경선 선생님은 서울에서 조금 먼 곳에 사셔서, 오시는 길이 쉽지 않다. 더구나 모임에서 가장 연장(90세가 넘으신)이시면서도 불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다.

모임의 뜻을 지키기 위함이신데, 이 또한 선생님만의 인품이라고 생각한다. 모임에 오시면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따뜻하게 인사하신다. 필자에게는 거의 아버지뻔

이 되시는 데도, 큰형이나 아끼는 후배를 대하듯 각별하게 대해주신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을 만난 듯 크게 반기는 분이시다.

말하자면 사람을 대함에 있어, 더 없이 진지하시다. 이는 선생님의 인격이 더 없이 진지하고 고매함을 뜻한다. 이는 쉽게 얻어지는 인품이 아니다. 물론 학식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이 살아 온 그동안의 인생이 진지하고 고매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원경선 선생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다. 1928년 황해도 수안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에 올라와 종로 YMCA 영어 학교, 그것도 야간학교를 3개월 다니신 것이 공식적인 학력의 전부다.

말하자면, 학문이나 학식에서 얻어진 인품이 아니다. 천성인 것이다. 그 천성은 크게 '자연사랑'과 '남을 돕는 봉사' 그리고 '깊은 신앙'에서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흔한 글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의 오늘엔 사모님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다.

이 옳다. 살아오신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다.

선생님은 1955년 '풀무원'을 창설하셨다. 오늘날 날 흔히 이야기하는 유기농, 자연농, 무공해 먹을거리의 창시자다. 땅과 생명을 죽이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피해를 사회에 알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기농 운동을 벌여,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토양을 바꾸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회장으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다. 이 공로로 1992년 '녹색인상', 1995년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글로벌 500' 상, 1997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1998년 제13회 '인간상록수'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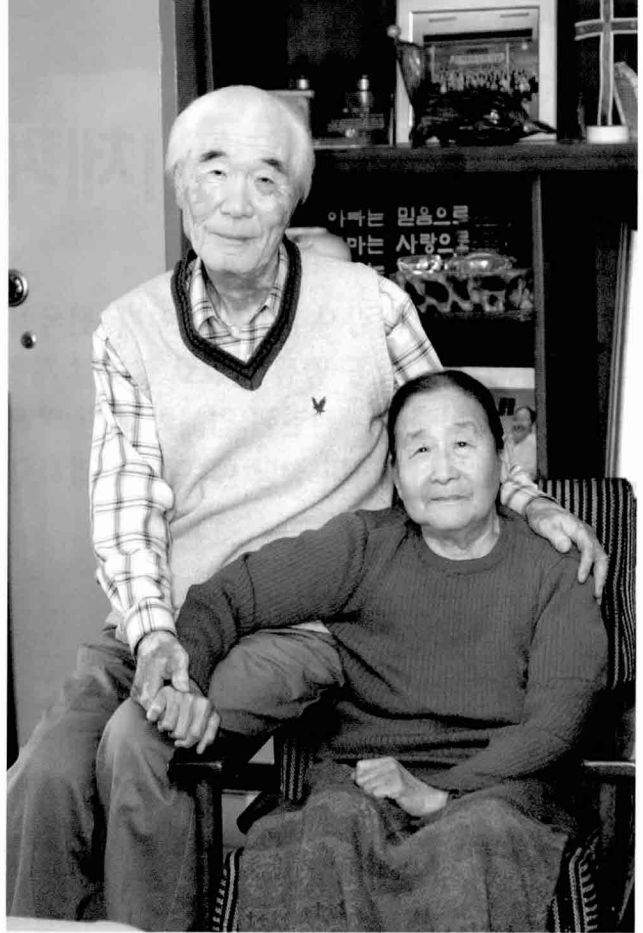
무엇보다 낮은 곳에서 생명의 정신, 공유와 나눔의 철학의 씨앗을 뿌리고 한 그루의 나무로 키워내는 선생이었다.

90세를 훌쩍 넘기셨는데도, 젊은 사람 부럽지 않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비결은 자기 관리라고 하셨다.

"15살 때 간디스토마를 2년 정도 앓았어요. 빈혈로 고생 많았는데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 현미식을 해오고 있는데 곡식의 영양소만을 섭취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육식으로 인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채식을 통해 땅과 자연의 이치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농부로서의 소임을 하시고, 전인교육의 모델로 널리 알려진 '거창고등학교' 이사장을 맡아 참교육을 실천하고 계신다.

〈다음호에 계속〉



농부로 땅과 인생을 가꾸어 오신 선생님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현정이다.

